

##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 ① 평가 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묶어내고,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과서와 교재에서 발췌한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이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논술시험의 경우 '모방'이라는 하나의 주제 속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능력과 이 논지들을 창의적으로 연계하고, 나아가 인간의 감각적 경험으로 인한 지식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철학적 비유에 기초해 현실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 극복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주어진 정보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석하고 분석하는 비판적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사회과학적·자연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②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는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하나의 공통 주제로 포괄할 수 있는 네 제시문의 상이한 관점과 담론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의 일차 독해 과정에서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 각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논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지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지문들의 내용들은 1) 선천적 호기심과 외적 보상 및 제지에 부응하려고 모방한 결과 사회화 과정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된다는 점(제시문 가), 2) 자연을 활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활의 향상을 꾀한 결과, 과학의 발전과 기술 및 자연의 선순환 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제시문 나), 3) 외모로 인한 따돌림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려고 모방했으나, 역설적으로 주인공은 자기 정체성을 오인하고 사회 제도와의 충돌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제시문 다), 4)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의 선진 기술과 조직 형태를 모방한 결과, 각 국가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화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논점(제시문 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각 지문의 내용들을 상호 비교, 대조하여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문제 2] 이 문제는 제시문 (마)에서 제시된 철학적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다)의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해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주인공 게리의 삶에 대입하여 살펴본 뒤, 제시문 (바)의 감각에 의존하여 취득한 경험적 지식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이성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지를 이용하여 주인공이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점 및 극복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우선, 제시문 (마)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우리가 오감을 통해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일상의 사실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으며 진실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철학적 비유를 제시문 (바)의 사회적 차별로 인해 외국인의 삶을 살게 된 주인공의 현실에 대입시켜 보도록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감각적 경험에 따른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를 함으로써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비유를 기반으로 하여 (바)의 주인공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문제 3]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제시된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적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로 출제되었다. 또한, 관련된 자료의 추론을 통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지지 또는 비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보의 홍수인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무분별한 수용 보다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출제의 숨겨진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수리적 지식의 범위는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이삼형 외. (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 지학사. 120~123쪽.
- 제시문 (나): 우한용 외. (2013). *국어(상)*. 두산동아. 276~277쪽.
- 제시문 (다): 조정래 외. (2011). *고등학교 문학 II*. 해냄에듀. 392~396쪽.
- 제시문 (라): 함성식 외. (2013). *탐스런 경제*. EBS. 70쪽.
- 제시문 (마): 박찬구 외. (2013).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142쪽.
- 제시문 (바): 이금준 외. (2011). *탐스런 윤리와 사상*. EBS. 137쪽.
- 제시문 (사): 서태열 외. (2011). *고등학교 사회*. (주)금성출판사. 286~288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지학사) 교과서에 실린 정진경의 「양성성에 관하여」라는 글의 일부이다. 두 양성성을 지닌 존재로 보자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문제 요인들 중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에 근거한 차별대우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별 조건에 따른 편견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이 되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성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든 인간이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양성성, 즉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가 선천적 호기심과 외적 보상 및 제지에 부응하는 것이 모방의 동기라면, 그 결과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상)』(두산동아) 교과서에 실린 「자연을 재창조하는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한 글의 일부이다. 이 교과서의 '부록 1. 힘 있는 말, 지혜로운 듣기'라는 단원의 '강의의 재구성'이라는 주제 아래 생체 모방 공학에 관한 이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생체'와 '모방'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생체 모방 공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학문 분야는 살아 있는 생물의 독특한 행동이나 구조,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 등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전자 및 기계 분야의 학문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생체 모방의 모든 것이 자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방의 시도는 자연에서 모방한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상품을 개발하고 과학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생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 II(해냄에듀) 교과서에 실린 전성태의 소설 「이미테이션」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에서 주인공 게리는 한국인이지만 혼혈인의 외모를 가진 인물로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소외된 삶과 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살고 있다. 주인공은 이러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사 잡지에서 본 외국인 '게리 워커 존슨'의 삶을 모방하여 외국인 행세를 하지만 결국 병역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다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라)는** 『탐스런 경제』(EBS) 교재에 실린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16세기 말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산업 기술과 조직 형태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남유럽의 항해술과 조선훈을 모방해서 원양 항해 능력을 터득했고, 육상에서는 풍차 기술을 발전시켜 효율적인 동력 자원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성공을 모방하여 18세기 초 영국 조선업계는 기술 발전을 피할 수 있었고, 나아가 영국은 증기 기관을 발명하여 새로운 산업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들 사이의 선진 기술과 조직 형태를 경쟁적으로 모방한 결과, 새로운 기술 혁신과 산업화의 동력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교과서에 실린 플라톤의 동굴 우화이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인지한 그림자나 인형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허상이며, 보통의 인간의 삶은 실재보다 그림자인 현상에 더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오감을 통한 경험에 기초해서 보면 실제보다는 그 그림자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누군가 이성을 통해 그림자의 세상인 동굴을 벗어나 동굴 밖의 세상에 있는 실체(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이며, 이성을 가진 철학자에 의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제시문 (바)는** 『탐스런 윤리와 사상』(EBS) 교재에 실린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기술한 글 중 일부이다. 데카르트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의심할 여지없는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제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 주관적으로 인식한 뱀은 결국 썩은 줄에 불과했다는 비유를 통해 철학자가 도달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시문 (사)는**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경제 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경향이고, 경제 성장의 수준이 언제나 삶의 질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삶의 질이 교육, 환경, 문화, 안전, 만족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경제 성장이 이들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 예시 답안

- [문제 1]** —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방의 다양한 동기와 그 결과를 상이한 관점에서 보여준다. (가)에서 어린이가 선천적 호기심과 외적 보상 및 제지에 부응하는 것이 모방의 동기라면, 그 결과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구축된다. (나)에서는 자연을 활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활의 향상을 꾀한 결과, 과학의 발전과 기술 및 자연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된다. (다)에서는 외모로 인한 따돌림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려고 모방했으나, 역설적으로 주인공은 자기 정체성을 오인하고 사회 제도와 외적 총돌 상황에 처하게 된다. (라)에서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의 선진 기술과 조직 형태를 모방한 결과, 각 국가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화의 동력을 마련한다. 이와 같이 모방의 동기는 자발성과 사회적 유용성 등에서 나타나고, 그 결과는 기술 발전과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성 역할의 고착과 부정적 사회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507자]
- [문제 2]** — 제시문 (마)는 사람들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동굴 속의 가상 세계를 보여준다. 이를 (나)의 주인공의 삶과 병치시켜 보면, 동굴 속에서 한쪽 벽면만을 보도록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과 실체를 모방한 인형과 그림자는, 주인공이 사회적 차별로 인해 외국인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잡지를 통해 본 외국인 '게리 워커 존슨의 삶, 그리고 그를 모방하여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며 그림자(인형)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허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주인공이 병역 제도라는 동굴 밖 세상의 현실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다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한편 감각에 의존한 경험적 지식에 대한 의심, 즉 반성적 사고를 통한 진실의 탐구를 주장한 바의 논지에 따르면 이런 정체성 혼란은 잡지 기사에 나타난 타인의 삶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방적 삶이 본질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이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560자]
- [문제 3]** — 독일과 대한민국,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1인당 실질 GDP'와 '초·중등학교 진학률'인  $\{(X_1, Y_1), (X_2, Y_2), (X_3, Y_3)\}$ 의 순위  $\{(R_1, S_1), (R_2, S_2), (R_3, S_3)\}$ 는  $\{(1, 2), (2, 1), (3, 3)\}$ 이 되고, 이때  $C=2$ ,  $D=10$ 이므로  $K=C-D=10$ 이 된다. 이때  $K=1$ 이 큰 값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K$ 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경우의 수와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n=3$ 일 때  $\{(R_1, S_1), (R_2, S_2), (R_3, S_3)\}$ 는 다음과 같이  $3! = 6$ 가지 쌍에 대하여 고려하면 되고, 각 경우에 대한  $C$ ,  $D$ , 그리고  $K$ 를 정의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R_i, S_i)$	$C$	$D$	$K$
(1,1), (2,2), (3,3)	3	0	3
(1,1), (2,3), (3,2)	2	1	1
(1,2), (2,1), (3,3)	2	1	1
(1,2), (2,3), (3,1)	1	2	-1
(1,3), (2,1), (3,2)	1	2	-1
(1,3), (2,2), (3,1)	0	3	-3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위의 6가지 경우는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경우의 발생 확률은  $1/6$  이고, 따라서  $K$ 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K$	-3	-1	1	3
확률	$1/6$	$2/6$	$2/6$	$1/6$

위의 확률 분포에 의하면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K=3$ 이 큰 값이라고 생각하여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 할 수 있는 확률은  $1/6 \approx 0.167$ 이고,  $K \geq 1$ (즉,  $K=1,3$ )인 경우에는  $3/6 = 0.5$ 로 주어진 한계인 0.2를 넘게 된다. 따라서  $K=3$ 인 경우에만 두 요인이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 국가에 대해 계산한  $K$ 값인  $K=1$ 로는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이 항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시문 (사)의 논지를 찬성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문제 1] — 30점 만점

###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00~5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pm 1 \sim 25$ 자	1점 감점
$\pm 26$ 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 2. 내용적 측면(30점)

1)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5점): 6~25점

(가): 어린이가 선천적 호기심과 외적 보상 및 제지에 부응하는 것이 모방의 동기라면, 그 결과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구축된다.

(나): 자연을 활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활의 향상을 꾀한 결과, 과학의 발전과 기술 및 자연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된다.

(다): 외모로 인한 따돌림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려고 모방했으나, 역설적으로 주인공은 자기 정체성을 오인하고 사회 제도와의 충돌 상황에 처하게 된다.

(라): 네덜란드와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의 선진 기술과 조직 형태를 모방한 결과, 각 국가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화의 동력을 마련한다.

-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20~25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5~19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0~14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6~9점 부여

※ 그밖에 참신한(기발한) 분류법으로 지문의 차이를 묶어 서술한 경우도 적절한 점수를 부여한다.

2) 네 개의 제시문의 특징을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2~5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만점 3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 표절(-5점)	한 문장 이상 표절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논지의 차이점 파악 (25점): 6~25점	4개를 정확히 제시한 경우	20~25점
		3개를 제시한 경우	15~19점
		2개를 제시한 경우	10~14점
		1개만 제시한 경우	6~9점
	② 논리적 구성(5점): 2~5점	서론-본론-결론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30~56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8점): 2~8점

- 사람들이 시각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그림자, 인형)을 진실이라고 믿고 진실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동굴 속의 가상의 세계를 통해 진실이 다른 곳에 있음을 제시함.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논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5~8점 부여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논지를 부분적으로 파악한 경우, 2~4점 부여

### 2) 제시문 (마)의 동굴의 비유에 따라 (다)의 상황 및 행위를 대입하여 의미 파악(20점): 8~25점

#### ① 제시문 (마)의 동굴의 비유

- i) 동굴 속에서 의자에 묶여 있는 상황 - 사회적 차별에 의해 주인공이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ii) 동굴 속의 그림자와 인형 - 잡지를 통해 본 외국인 '게리 워커 존슨'의 삶과 그를 주인공이 모방하여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행위

#### ② 의미파악

- i) 외국인으로서의 삶은 그림자나 인형의 삶으로서 허상이며 이로 인해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러한 삶이 병역 제도라는 현실과 충돌하면서 다시 정체성의 혼란이 생김

- 2가지를 적절히 기술하였을 경우, 16~20점 부여
- 2가지 중 하나를 적절히 기술하였을 경우, 11~15점 부여
- 2가지를 모두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6~10점 부여

### 3)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주인공의 문제점의 원인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10점): 3~12점

#### ① 제시문 (바)의 논지 파악

- i)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여 취득한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에 대한 끊임 없는 의심, 생각(이성적 사고)을 통해 진실에 이를 수 있음을 제시

#### ② 대안제시

- i) 주인공이 타인의 삶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다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타인의 삶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이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함

- 2개를 모두 언급하였을 경우, 8~12점 부여
- 1개만 언급하였을 경우, 3~7점 부여

-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만점 4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 표절(-5점)	한 문장 이상 표절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논리를 파악: 8점	(마)의 논지파악	2~8점
	② (마)의 비유를 이용하여 (다)의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 20점	2가지 모두 적절히 기술	16~20점
		2가지 중 하나만 적절히 기술	11~15점
		2가지 모두 제대로 기술하지 못함	6~10점
	③ (바)의 논지 파악 및 대안 제시: 12점	(바)의 논지파악 및 대안 언급	8~12점
논지 파악 또는 대안 언급 부족		3~7점	

[문제 3]

30점 만점

※ 채점기준: 30점 만점

- ① 절차에 제시된 [단계 1]과 [단계 2]에 따라, 주어진 자료에 대한  $X_i$ 의 순위인  $R_i$ 와  $Y_i$ 의 순위인  $S_i$ 를 부여한다.
- ② [단계 3]와 [단계 4]에 따라  $C=2$ ,  $D=1$ , 그리고  $K=1$ 을 계산한다.
- ③ 가능한 6가지의  $\{(R_1, S_1), (R_2, S_2), (R_3, S_3)\}$  쌍을 유도하고, 각 쌍에 대하여  $C$ ,  $D$ , 그리고  $K$ 를 계산한다.
- ④ 계산된  $K$  값들에 기초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K$ 의 확률 분포를 도출한다.
- ⑤  $K$ 의 확률 분포를 근거로 'K값이 큰 경우'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②에서 계산된  $K$  값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다. 즉, "세 국가에 대해 계산한  $K=1$ 은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 ⑥ 이 결론에 따라 제시문 (사)의 논지를 찬성한다.

참고:  $\{(R_1, S_1), (R_2, S_2), (R_3, S_3)\}$  쌍에 대하여 6가지 대신 36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R_1, S_1), (R_2, S_2), (R_3, S_3)\}$ 에서 서로 순서만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1,1), (2,2), (3,3)\}$ 에서 서로 순서만 바뀌는 총 6가지,

즉  $\{(1,1), (2,2), (3,3)\}, \{(1,1), (3,3), (2,2)\}, \dots, \{(3,3), (2,2), (1,1)\}$ 에서는 동일한  $C$ ,  $D$ , 그리고  $K$ 를 얻는다.

따라서  $R_1, R_2, R_3$ 는 각각 1, 2, 3으로 고정된 후  $S_1, S_2, S_3$ 가 바뀌는 6가지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

- ①~⑥의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유도한 경우 30점 부여
- ①은 5점
- ②는 7점, 즉 ①과 ②에 따라  $K$ 를 맞게 계산하면 12점 부여
- ③과 ④에 따라  $K$ 의 확률 분포를 올바르게 도출한 경우 12점 부여  
올바르게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의 경우 부분 점수 부여
  - ▶  $K$ 가 가질 수 있는 값인  $-3, -1, 1, 3$ 을 언급하면 3점 부여
  - ▶  $K$ 의 확률 분포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그 내용에 따라 3~6점 부여
- ⑤는 4점
- ⑥은 2점
- 단, 계산상 실수는 과정에 부여된 점수를 감안하여 그 경중에 따라 감점